

'K-방산, 전북자치도 신성장 동력'

전북자치도, '2월 2차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특강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공무원들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전북형 방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열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산업을 주요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2월

2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도청 공연장에서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 K-방산'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린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은호 전방위사업청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

됐다. 임 부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방위산업은 최첨단 신소재 연구개발부터 우주까지 연결돼 있어, 전북의 미래는 K-방산에 있다"며, "작년에는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방산이라는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소재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은 방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잠재력이 있다"며, "새민금의 풍부한 연구 및 산업용지를 활용, 기존 방산 중심도시와 밀접하게 협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방산 연구 협업 및 관련 업체 유치에 대한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2월 2차 새로운 전북 포럼'이 열린 가운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 K-방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권증진실무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인권증진실무협의회 개최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 실현"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권증진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인권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인권증진실무협의회는 인권옹호부서 간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10월 여성·아동·다문화·노인·장애인·청소년·감질·일반 등 8개 분야 10개 팀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전북 인권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 점검을 위한 관련부서 20개 팀도 포함해 총 30개 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번째 안건은, 2024년 전북 인권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 점검으로 제2차 전북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의 비전 아래 4대 전략목표, 8개 실행과제, 50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부서별 이행사항 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은 제6회 전북특별자치

도 인권옹호차포럼으로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일정, 장소, 포럼주제, 토론 발제자 및 패널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 번째 안건은 2023년 실시했던 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사 용역결과 안내로 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지침을 인권 관점에서 점검해 복지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함께 협력하는 인권보호 특성화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축제 인권친화적 운영 사전 점검계획을 설명하며, 실과 소관 각종 축제·행사·회의 개최시 사립이 중심이 되는 인권친화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

도 실과가 지도·감독하는 기관·단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 홍보물 배부 및 각종 건물 등 시설물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도 불편함 없이 사용될 수 있게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유무도 점검토록 협조를 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심의위서 기금사업 의견 나뉨... 1차 신청 36건 47억원 등 심의·의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9일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기금 결산 보고 및 2024년 1차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고 기금 개선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기금 결산 보고, 심의 위원 위촉,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특별 수매자금 지원 시 상환기간 단축적 적용, 대출규모 한도 상향(2,000억원→3,000억원), 2024년 1차 기금 신청자 건에(36건, 47억원) 대해 심의·의결했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도내 농림업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1~5억원까지 연리 1~2%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기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심의회위원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농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지원 대상자 선정 건에 대해 심의·의결 등을 맡는다.

현재,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350억이며 대출 가능액은 2,000억원 규모로 제주도(5,000억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지난 코로나 등 농산물 등락에 따라 수요가 급증해 2,000억 중 89%가 대출되는 등 수요가 폭발해 기금 운용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재훈 기자

도, 등록규제 220건 홈페이지 공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에게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2024년 등록규제를 지난

달 29일 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표

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2023년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 건

(△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제한으로 규제 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돼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등록규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 6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6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051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받은 가스보일러(LNG 사용)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약 87% 저감)하면서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약(최대 44만원)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만421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3만13,374대(일반 3만12,271, 저소득층 1,103대)를 보급했으며,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92톤과 온실가스 1만7,888.4톤을 감축했다. 특히, 올해에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는 대신 기존 저소득층을 포함해,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명 이상, 막내만 18세 이하),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대당 최대 6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